

근대의 성립과 연애의 발견*

- 기생과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한일 비교문학 연구 -

류종렬** · 남부진*** · 이태숙**** · 정혜영*****

차 례

I. 서론	1. 정신적 <연애>와 여학생의 등장
II. 일본과 조선에서의 <연애>의 생 성과정	2.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기생의 몰 락
III. 명치시대 일본소설과 20년대 한 국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전개 과정 비교	IV. 결론

I. 서론

남녀애정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연애’는 일본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서 생성, 대략 191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에 이입, 사용된다. 이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2-A00054)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공동저자

*** 일본 静岡大學 교수, 공동저자

**** 아주대학교 강사, 공동저자

*****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공동저자

후 ‘연애’는 3. 1운동 직후 문화정치의 실시와 더불어 전개된 근대적 문물의 전면적 이입, 그리고 유학 세대의 대거 귀국과 같은 1920년대의 사회,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지배적 사조로서 자리하게 된다. 당대 사회 내에서의 ‘연애’가 지닌 파급력에 대해서는 조선 사회 전체가 “유행하는 독감모양으로 연애전염병”¹⁾에 걸렸다고 한 당대 논설의 언급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연애’의 이와 같은 대사회적 파급력은 남녀평등의 근대적 의식의 상징으로서의 ‘연애’의 제의미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조선에서 ‘연애’의 대유행에는 사랑에 대한 낭만적 동경, 그리고 신문물로서의 ‘연애’에 대한 들뜬 도취와 더불어, 근대적 세계에 대한 변혁기 조선의 강력한 열망이 어우러져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연애’의 조선적 수용 및 성립과정에 대한 고찰은 조선의 근대를 읽어내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용어 ‘연애’의 생성지 일본에서의 ‘연애’의 생성 및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일본근대의 기원을 살피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서 ‘연애’의 생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伊藤整가 『근대 일본에서의 사랑의 허위』, 라는 글²⁾에서 ‘연애’의 이입 과정을 통해서 서구적 근대의 일본적 수용 상황을 고찰한 것은 그 대표적 예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佐伯順子の 『연애의 기원』³⁾, 平石典子の 논문 『감각의 향연- 가브리엘·다뉴치오와 일본의 세기말』⁴⁾들 등을 통해 ‘연애’에 대한 논의는 근대의 기원을 탐색키위한 중요한 통로로서 전개되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1) 바-보, 『戀愛는 神聖한가』, 『青年』, 1921. 5, 23쪽.

2) 伊藤整, 『近代日本における‘愛’의 虛位』, 1958, 『伊藤整全集』 第十八卷, 新潮社, 1973.

3) 佐伯順子, 『戀愛の起源』, 日本經濟新聞社, 2000.

4) 平石典子, 『感覺の饗宴- カプリエルダヌツォと日本の世紀末』, 『比較文學研究 60』, 東京大學比較文學會, 1991. 2.

에서의 ‘연애’의 전개과정과 ‘연애’의 조선적 전개과정 및 그 형성과정, 그리고 양국의 연애간의 낙차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근대적 수용의 실체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근대문학 형성기의 한국 문학을 미시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그 한 접근법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페미니즘적 접근법에 의한 근대문학 연구는 근대성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 페미니즘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내재하고 있다. 최근 문옥표외의 7인에 의해 발표된 일련의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⁵⁾ 일단 한국문학내의 페미니즘 논의를 한·일 관계의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연구의 대상만 확대되었을 뿐 기존 페미니즘 연구의 한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대성 자체에 대한 합의된 접근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스스로도 서론에서 인정했듯이 하나의 시론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한·일 연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의미이상의 다른 방법론도 없으며, 대상에 대한 합의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연구 방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합 집산하는 최근의 연구 풍토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방법의 지향점이 비슷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끊임 없는 논의와 수정을 통해 합의된 연구를 만들어 내고자하는 부단한 노력이 인문학 연구에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가 있으며 연구 방향도 비슷한 연구자들이 함께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접근만이 단순한 논문 모음집을 벗어나 보다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연애’라는 중심주제로 한국 근대문학을 규명하고자 하는

5) 문옥표외, 『신여성』, 청년사, 2003.

일련의 시도들이 있다. 서영채의 『사랑의 문법』(민음사, 2004)은 이광수, 염상섭, 이상의 작품 속에 나타난 ‘사랑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서 조형된 문학적 주체의 형성과정을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서영채의 연구는 근대성 담론이나 ‘연애’가 중심이 아닌 각각의 작가가 보여주는 서로 다른 소설의 형성방식이라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가진다. 서영채의 연구에서 ‘연애’는 소설의 다양성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연애’가 가지는 근대성의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내재한 시대적 정황들이 보다 면밀히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애’ 혹은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주제라는 식의 막연한 결론이 반복되는 오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근대문학이 대상이 되면서 ‘연애’의 담론이 중심이 되는 연구로는 권보드래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가 있다. 권보드래는 1920년 대라는 시대를 하나의 사회상으로 고찰하면서 당시의 유행을 통하여 시대를 재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방법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문명을 당시에 이미 체화했던 일본문학의 흐름을 간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한국 근대문학 담당자들이 일본유학을 통하여 근대문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더욱 분명할 것이다. 권보드래의 연구는 일본문학과 연관성을 분명히 설정해야만 의미가 있는 ‘연애’라는 담론에 대해 일종의 유행의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논문으로서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시담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경향이 의미 있는 것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연구가 단순한 미시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사 전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재구성을 지향해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이 일본 근대문학의 영향권 하에서 동아시아적인 연대를 형성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한국 근대

문학연구는 일본문학과의 연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문제와 연구 범주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 근대문학연구자와 일본 근대문학 연구자와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개척할 수 없었던 동아시아적 패러다임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추적하는 것이 궁극의 지향점이 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근대문학 형성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문학의 중심이 되었던 ‘연애’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애’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었던 신여성들은 ‘기생’과 ‘여학생’으로 나뉜다. ‘기생’과 ‘여학생’은 근대형성기에 새로이 등장한 주체이면서 근대의 지향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애’의 담론이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학적 ‘연애’의 담론만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문학의 새로운 주체에 대한 문제를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의 여성주체와 일본 근대문학의 여성주체는 전개의 양상이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 근대문학 담당자들이 공히 일본 유학생 출신들이라는 점이 그 이유일 것이고, 1920년대는 이미 합방 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일본 근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공간적 의미가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 본 연구는 ‘기생’과 ‘여학생’이라는 두 가지 범주의 여성주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에서 ‘연애’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명치 및 대정시대

일본 연애론의 선봉을 점했던 『女學雜誌』를 비롯하여 잡지 『太陽』 그리고, 연애론의 선구자였던 北村透谷의 논의들, 연애를 테마로 한 明治 및 大正 시기 다수의 소설들, 연애의 전파에 영향을 끼쳤던 명치시대 번역문학의 실태를 함께 조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적 연애의 형성과정 및 그 변용의 실태를 조사해 보겠다.

II. 일본과 조선에서의 <연애>의 생성과정

일본에서 ‘연애’라는 용어는 영어 ‘love’의 번역을 위해 1870년에 생성된 신조어⁶⁾이다. 『翻譯語成立事情』의 다음의 언급은 ‘연애’가 1870-90년대에 걸쳐 생성된 새로운 개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애」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의, 설명이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연애」라는 것은 舶來의 관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연애」에 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인가. 「연애」도 역시 「미」와 「근대」 등과 마찬가지로 번역어이기 때문이다. 이 번역어 「연애」에 의해서 우리들은 겨우 일세기정도 전에 「연애」라는 것을 알았다. 요컨대 그때까지의 일본에는 「연애」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⁷⁾

‘러브’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는 情, 戀과같은 용어가 일본어에 있었음에도 ‘戀愛’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성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 그리고 사랑은 인간 고유의 감정임에도 근대 이전에는 ‘러브’ 곧, ‘연애’가 없었던다는 등, ‘연애’의 성립과정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연애’라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사랑 곧 戀과는 독립적인 개념이었음을 충분히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러브’에 대응되는 용어로서의 ‘연애’란 어떤 개념이었던 것일까. 1885년 『女學雜誌』에 실린 嚴本善治의 「婦人の地位」라는 사설은 이 개념 파악을 위해 하나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嚴本善治는 인간 문명의 단계를 야만(野蠻), 반개

6) 일본에서 <戀愛>라고 하는 번역어의 최초의 용례는 대략 1870-1871년에 나온 中村正直의 번역, 『西國立志編』에서였다고 말해진다.(柳父 章著,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新書, 1982, 95쪽.)

7) 柳父 章,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新書, 1982, 89쪽.

(反開), 개화(開化)의 삼단계로 분리하고 남녀간의 애정 역시 色, 癡, 愛의 삼단계로 나누어 그에 대응시키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교정(交情)의 양상의 진보도 역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에는 역시 삼단계가 있는데 첫째로 색(色)의 시대 둘째로 치(癡)의 시대 셋째로 애(愛)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색(色)이라는 것은 동물의 암수가 서로 교접함과 같이 단지 육체상의 정욕이고 치(癡)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情)에서 나온 것이고 애(愛)라는 것은 즉, 진정의 영혼에서 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⁸⁾

역사 발전과 남녀 애정의 완성을 각각 ‘개화’의 시대와 ‘진정의 영혼의 결합에서 발한 애’에 두고 있는 이 논지는 시대의 발전 형태와 애정의 성숙 단계를 직접 대응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애정의 저급한 단계인 색(色)은 야만의 시대, 중간 단계인 치(癡)는 반개의 시대, 그리고 애정의 최고 단계인 애(愛)는 개화의 시대와 연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애(愛)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변화의 와중에서는 이전시대의 모든 시대적 습성들이 야만적인 것이라고 부정되듯 前시대의 애정의 형태 역시 부정된다. 이때 부정된 前시대의 애정의 형태인 색(色)의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것이 ‘개화’라는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애정의 형태 즉, 정신적 가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러브’이다. 이 ‘러브’에, 戀이라든가 情과 같은 前시대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애정의 형태를 담아낼 새로운 용어, 그 필요성에서 생성된 것이 ‘戀愛’라는 용어이다. 이 시기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연애’야말로 남녀 간의 애정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신의 대변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연애’에 대한 이 시기 지식인들의 찬사-예를 들면 고상한 감정⁹⁾, 신성한 것이라는 등

8) 嚴本善治, 『婦人の地位』, 『女學雜誌』, 1885. 8. 3쪽.

9) 연애론이 환창 성립되기 시작하던 1891년 「色情愛情辨」이라는 『女學雜誌』의 寄稿文을 보면 “「러브」는 고상한 감정이고 「러스트」는 열등한 정욕”이라고 정의되

- 속에는 ‘연애’ 즉 ‘러브’의 정신 우위성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광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선구적 개척자로서의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함께 들어 있었음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깊게 영혼(soul)에서부터 사랑한다.”¹⁰⁾는 嚴本善治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연애’ 속에는 정신과 육체의 구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사고가 내재해 있었다. 이처럼 ‘연애’가,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취급하려는 전시대 애정의 형태를 부정하면서 정신 우위의 사고를 긍정하고 나섰던 것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유한한 육체의 세계인 현세에 대한 부정과, 무한한 정신의 세계인 내세에 대한 긍정 속에서 진행되는 단선적 의미에서의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 그 개념이 ‘러브’ 즉 ‘연애’를 움직이고 있었다. 당시 연애론의 선구적 주창자였던 北村透谷이 진정한 가치의 세계로서의 타계(他界)와 그 반대 개념으로서 실계(實界)를 상징, “실계(實界)에서만 추구하는 사상은 고원(高遠)한 사모(思慕)를 낳지 않고 ……육정(肉情)을 앞세우고 진정의 애정을 뒤로한다.”¹¹⁾고 언급한 후 ‘진정의 애정’을 ‘연애’로 정의했을 때, 그 기본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러브’의 근간이었던-이었다.

그러나 연애의 등장기였던 “명치시대의 지식인들이 광범위하게 ‘愛’의 이상에 매료되고 있었던 것은 ‘愛’가 남녀평등한 ‘文明’사회를 표현해준다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일본작가 平内逍遙가 언급한 ‘景慕’, 嚴本善治가 언급한 ‘尊敬’과 ‘愛’의 조건으로서 ‘상대에 대한 존경’의 사고가 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되고 있었던 것은 특히 여성에 대한 존경을 촉구할 목적에서였다. 그것은 명치시대 일본의 남성의 심리 중에는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단순히 성욕처리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에 별다른 죄악감을 느끼지 않은 여성관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 말하자면, 러브의 번역어로서의 연애에는 “남녀평등

어 있다.(Y.T, 『色情愛情辨』, 『女學雜誌』, 1891. 2, 106쪽.)

10) 嚴本善治, 『俗間の 姫百合』, 『女學雜誌』, 1890. 10.

11) 北村透谷, 『他界에 대한 觀念』, 『北村透谷選集』, 岩波文庫, 1988, 201쪽.

을 목표로 하는 육체관계의 배제라는 요인이 강력하게 관계되”고 있었던 것이다.

러브의 번역어로서의 ‘연애’는 근대적 남녀관계의 상징적 의미로서, 이후 명치, 대정기의 일본 문학에서 중요한 테마로서 취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長恨夢>이란 이름으로 번안, 크게 인기를 끌었던, 尾崎紅葉의 <金色夜叉>, 平内逍遙의 <當世書生氣質>, 二葉亭四迷의 <浮雲>, 森鷗外の <青年>, 夏目漱石의 <三四郎> 등에서 발견되는 藝娼妓의 모습 등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말하자면 원천적 ‘연애’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육체의 부정과 정신의 긍정이라는 기본적인 태도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녀의 애정 관계를 정신성과 육체성으로 이원화시킨 후 전자의 우위성을 역설하는 ‘연애’의 제의식 및 태도는 양자의 구별 없이 일원화시켜 파악하던 1910년대 조선의 분위기에서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었다. 여기에는 ‘연애’라는 용어가 우리 고유의 토착어가 아니라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후 용어 ‘연애’는 이광수의 『無情』이 발표된 1917년을 전후하여 『學之光』, 『青春』 등의 잡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1910년을 넘어서면서 조선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조혼·축첩폐지, 여자교육과 지위향상에의 추구와 같은 일련의 ‘사상대개혁’¹³⁾작업이 중요한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다. 남녀 애정관계에 있어서 ‘영혼의 결합’, 즉 정신적 가치에 중점을 둔 ‘연애’가 여성의 지위향상, 일부일체제 준수를 통해 평등한 인간관계를 사회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12) 佐伯順子, 『‘色’と‘愛’の比較文化史』, 岩波新書, 1998, 16-17쪽.

13) 1915년 『學之光』에 발표된 『思想改革論』에서는 신생활을 구축을 위해서는 조선 사회에 일대의 신사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조선사회에 일대의 孔敎의 타파, 자유연애의 고취등과 같은 사상대개혁작업을 제기하고 있다.(宋鎮禹, 『思想改革論』, 『學之光』, 1915)

면 1910년을 전후하여 조선사회에서 진행된 이상의 대개혁 역시 동일한 것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연애론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광수이다. 이광수의 『婚姻에對한管見』은 ‘연애’의 제 의미 및, ‘연애’의 사회개혁적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광수는 혼인풍습의 개량을 논한 『婚姻에對한管見』에서 ‘연애’야말로 “個人的 幸福중에 最大한 幸福”이라고 전제한 뒤 ‘연애’를 건강, 정신력, 경제력, 충분한 발육으로 열거되는 혼인의 조건 중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즉, 조혼, 강압결혼과 같은 구시대 혼인의 풍습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연애’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연애’에 대한 다음의 언급은 ‘연애’가 이처럼 사회적 구습타파의 중심위치에 놓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된다.

戀愛의 근거는 男女 相互의 個性의 理解와 尊敬과 따라서 相互間에 일어나는 熱烈한 引力的 愛情에 있다하오. 母論 容貌의 美, 音聲의 美, 舉動의 美등 表面的 美도 愛情의 重要한 條件이겠지오마는 理知가 發達한 現代人으로는 이러한 表面的 美만으로는 滿足하지못하고 더 깊은 個性의 美—即 그의 精神의 美에 恍惚하고사 비로소 滿足하는것이지오. 外貌의 美만 取하는것은 아마 動物的 又は 原始的 愛게시오. 進化한 戀愛의 特徵은 熱烈한 感情의 引力과 明皙하고 冷靜한 理知의 判斷이 平行하는데 있다하오 가장 잘 教育 바든—即 가장 健全하게 發育한 青年男女의 戀愛은 이러한것인가 하오.¹⁵⁾

여기서 ‘연애’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냉정한 이

14) 1910년대 자유연애라는 용어가 지닌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박영희의 이광수 『無情』에 대한 한 고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박영희는 『無情』이 발표된 시대는 “數百年동안의 儒敎道德에 눌려서… 女子는 男子의 奴隸와 같고 青年은 父老들의 奴隸와 같이 自主의 自由性이 없었던 시대로, “그때의 자유연애라는 것은 자유연애 그것이 벌써 옛도덕에 대한 항쟁이며 옛사회에 대한 투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三)』, 『思想界』, 1958. 9, 46쪽.

15) 李光洙, 『婚姻에 對한 管見』, 『學之光』, 1917. 4, 376-377쪽.

지의 판단이 평행”해 있는 ‘진화’된 애정의 형태로서 정의되고 있다. 즉, ‘연애’라는 것은 “고상한 정신생활을 가진자”의 “영적(靈的)요구”로 이루어진 “문명적”애정이라는 것이다.¹⁶⁾ 이처럼 이광수가 ‘연애’에 내재된 정신적 가치 우선의 태도를 ‘진화’ 혹은 ‘문명’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남녀 상호의 개성의 이해와 존경”에 기반 한 평등을 의미하며, 자유로운 남녀 관계형성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婚姻에 對한 管見』에서 이 논지에 이어 남녀의 영적 결합의 기본조건으로서 여자의 교육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연애’의 정신성과 평등하고 자율적인 남녀관계의 성립, 이 양자 간의 이와 같은 밀접한 연관성을 설명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지의 결말부에서 영적(靈的)결합이 부재한 남녀관계를 매음, 혹은 야합이라 전제한 후 영적(靈的) 결합의 부재에서 출발한 조선의 모든 부부관계를 야합의 관계로 규정해버리고 있음은 ‘연애’에 내재된 사회 개혁적 측면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女性을 人으로 잡았는 故로 戀愛가 생”¹⁷⁾ 겠다는 『學之光』한 논설의 언급처럼, ‘연애’의 실현에는 남성과 사회적 정신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여성의 교육이 필수적 조건으로서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애’로 결속된 부부관계가 남성중심적 일부다처제를 거부하고 일부일처제로 나아감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이광수가 『婚姻에 對한 管見』의 마지막 논지에서 여성의 정조와 더불어 남성의 정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식민지라는 한정된 상황 속에 갇혀 있던 이광수에게 있어서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자각에 기반한 ‘연

16) 이와같은 이광수의 견해는 인간 문명의 단계를 야만(野蠻), 반개(反開), 개화(開化)의 삼단계로 분리하고 남녀간의 애정 역시 色, 癡, 愛의 삼단계로 나누어 대응시킨후 역사 발전과 남녀애정의 완성을 각각 <개화>의 시대와 “진정의 영혼의 결합에서 발한 愛”에서 찾고있던 일본 연애론의 선두주자 嚴本善治의 진화론적 태도와 상당히 닮아있다고 하겠다.(嚴本善治, 『婦人の地位』, 『女學雜誌』, 1885.8, 3쪽.

17) 桂麟常, 『舊說을 버셔요(-)』, 『學之光』, 1919. 8, 52쪽.

애'야말로 조혼, 강압결혼, 남존여비 등으로 점철된 전근대적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고 할 수 있다.

Ⅲ. 명치시대 일본소설과 2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전개과정 비교

1. 정신적 <연애>와 여학생의 등장

‘연애’는 남녀관계의 정신화를 주된 모토로 성립된다. 明治 36년 발표된 小杉天外의 <魔風戀風>과 <思出의記>는 근대교육을 받은 제국대학 출신의 청년들이 등장, 강압결혼을 피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연애’를 실현시키려는 움직임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애정이 동반되지 않는 결혼을 하고, 감정의 만족을 결혼외의 관계에서 구했던 전통적 남녀 관계를 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남녀관계의 성립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여학생을 테마로 이 작품에 앞서 발표되었던 후다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蒲団>에서도 이미 발견된 부분이다. 소설의 히로인으로서 여학생이 등장, ‘영어’ 수업을 매개로 남녀가 친밀, 연애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전개는 바로 이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남녀관계야말로 문명적이라고 한 이와 같은 새로운 ‘사랑’의 이상은 유교도덕과 합체해서 자유로운 남녀 교제를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신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오히려 당대 신여성들을 속박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 상징이 여학생들에게 씌워진 ‘타락’이라는 오명이다. 예를 들어서 전술한 <蒲団>에서 여주인공 芳子が 연인과 육체관계를 가진 것을 고백하는 편지에서 ‘나는 타락여학생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듯이, 이성과 교제하는 여학생

은 ‘타락’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비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타락’이라는 용어는 넓게 여학생의 행동을 규제하는 때에 사용되기 위해 이 시기를 들어서 새롭게 변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남녀관계의 정신화, 靈化를 통해 구질서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기획했던 ‘연애’의 제의식이 오히려 여성의性に 대해 훨씬 더 강력한 보수성을 견지하고 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연애가 본격적으로 이입되기 시작했던 1920년대 조선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男女貞操問題』¹⁸⁾, 『男子貞操論』¹⁹⁾, 『貞操의 科學的研究』²⁰⁾ 등의 논설을 비롯, 정조의 상실 = 죽음으로 연결되는 『情操』라는 제명의 소설²¹⁾, 그리고 직접 ‘정조’라는 용어를 거론하지는 않지만 동일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성욕의 승화’, ‘처녀’에 대한 존중을 논한 논설²²⁾ 등 1920년대 조선은 ‘정조’ 증후군 혹은 性的결벽증에 걸린 듯한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정절의 관념성과 달리 육체성에 훨씬 더 강력하게 기울어진 이와 같은 ‘정조’의 등장은, ‘연애’를 통해 전파되고 있던 남녀관계의 정신화·靈化 경향, 그리고 일부일처제에 기저한 ‘가정’의 사회적 확산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전근대적 구습타파의 일환으로 1900년대를 지나면서, 조선사회에 등장한 근대적 가족관계인 ‘가정’의 성립이 남녀상호간의 ‘정조’ 준수를 필수적 조항으로 요구하고 있었다면, 남녀 애정관계의 정신화를 통해 평등한 남녀관계를 도모해가려던 ‘연애’의 실현에 있어서도 정신화의 보증으로서의 ‘정조’, 즉 육체적 순결성의 준수는 역시 필수적 조항이었다. ‘처녀’에 대한 찬탄이 급작스레 등장하고, 순결한 육체를 지닌 ‘여학생’이 ‘연애’의 히로인으로서 등장 하는 것에는 ‘연애’와 정조, ‘연애’의 결정체

18) 『男女貞操問題의 將來』, 『青年』, 1921.4.

19) 『男子貞操論』, 『青年』 27호, 1923. 7

20) 白錦生, 『情操의 科學的研究』, 『新天地』 11月號, 1921. 11

21) 春城, 『貞操』, 『新民公論』 1月號, 1921. 12

22) 『어찌하야 처녀를 존중하나』, 『東明』 第十六號, 대정 11년 12. 17.

로서의 ‘가정’과 ‘정조’간의 불가분의 관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여학생을 히로인으로 설정, 남녀 애정관계의 정신화를 지향해가는 이광수의 <無情> 그리고 여학생의 처녀성 상실을 주된 테마로 한 김동인의 <弱한자의 슬픔>, <마음이 열린 者여>, 나도향의 <환희>, 현진건의 <유린> 등 일련의 소설을 통해 충분히 발견되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명치시대 일본문학에 나타난 여학생의 이미지 및 연애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근대화시기에도 여학생과 자유연애의 문제는 논쟁의 중심이었다. 한국 근대문학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 근대문학을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처해나간 궤적들을 살펴봄으로써 두 개의 근대성이 형성되는 위상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일본 근대문학에서 최초의 언문일치체 소설이자 근대문학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후타바테이 시메이의 <부운(浮雲)>(1887)은 근대화시 메이지 사회 일본인들의 착종된 의식세계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²³⁾ 메이지 19년(1886)경의 도쿄가 무대이며, 몰락한 사무라이의 자식으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의 집에서 관원으로 근무하는 분조를 중심으로 당대 일본사회의 혼돈된 양상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3편으로 구성되어있는 작품은 1편에서는 당대 관료사회의 부정과 출세지향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신구사상의 충돌이 중심이라면 2편에서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갈등이, 그리고 3편에서는 직장도 없고 사랑도 잃게 되는 분조의 뜬구름처럼 불안하기만한 내면이 중심이 된다. 근대적인 것과 전근대적인 것, 육체와 관념, 구세대와 신세대등 메이지기 일본사회의 문제의식들을 담아내고 있는 일본 최초의 언문일치체 근대소설인 것이다. <부운>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

23) <浮雲>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의 연구사를 참고할 수 있다.

송혜경,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부운(浮雲) 연구 : 메이지 초기 연애관과 오세이의 비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3.

정병호,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부운』(浮雲)론』, 고려대학교, 1995.

는 작품이지만, 분조가 사랑하는 사촌 오세이의 신분이 여학생이라는 점, 두 사람 사이의 엇갈린 애정관이 작품의 중심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1920년대를 전후한 조선사회의 근대에 대한 열망이 담아내고 있는 자유 연애와 여학생의 풍경을 상기하게 한다.

메이지 시기 연애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었다. 영육을 분리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기존의 영육 일치의 일본적 애육의 관념을 영육분리의 서양적 세계관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²⁴⁾ 주인공 분조와 오세이의 애정관계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근대적 연애관의 추구는 바로 이러한 메이지기 기독교적 세계관이 추구하던 영육분리의 전형적인 연애관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여주인공 오세이의 어머니 오마사가 이른바 ‘이끼(意氣)²⁵⁾’로서 남녀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메이지기 새로운 남녀관계의 주인공인 오세이의 남녀관계는 ‘연애’로서 드러나고 있다. ‘이끼’가 에도시대 유곽에서 행해진 遊女の 철저한 처세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면 메이지기 여학생인 오세이의 연애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는 정신의 일치로서 나타난다. 어머니 세대인 오마사의 ‘이끼’와 딸의 세대인 오세이의 ‘연애’는 일본의 근대 형성기에 새로운 남녀관계의 이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립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라고 해서 모두 새로운 근대적 이상으로서의 연애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분조의 대척점에 서있는 노보루는 처세의 달인이다. 분조가 소심한 성격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도 복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노보루는 직장 내에서는 과장의 신임을 얻고 오세이의 어머니 오마사에게는 선물과 향응으로 역시 분조에게 기울었던 오마사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것이다. 노

24) 北村透谷, 『他界に對する 觀念』, 『北村透谷選集』, 岩波文庫, 1988. 201쪽.

佐伯順子, 『「色」と「愛」の比較文化史』, 岩波書店, 1998.

25) ‘이끼’(意氣)는 근세 후기 에도 시대의 생활 및 문학의 미적 이념으로 땀물이 빠진 도회풍의 세련된 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촌스러움의 반대되는 의미이다.

佐伯順子, 『文明開化と 女性』, 新興社, 1991. 21~25쪽.

보루와 오마사가 남녀관계를 '이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분조와 오세이는 '연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浮雲>이 분조와 오세이의 해피엔딩으로 결말짓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오마사와 오세이에게 마저 외면당한 분조가 결국은 정신착란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미완성의 상태로 작품은 종결된다. 결국 <부운>은 관념과 이상만이 앞질러가고 실체를 동반하지 않았던 메이지 문명 전체를 '연애'를 통하여 패러디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²⁶⁾ 영어학원에 다니며 『女学雜誌』에 나오는 새로운 여성을 꿈꾸었던 오세이는 메이지기 일본의 신여성, 여학생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선을 드러낸다.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서의 신여성, 여학생의 모습이 오세이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오세이의 '연애'에 대한 부동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자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변질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²⁷⁾ 그러나 오세이가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내적 인식을 해나가는 하나의 주체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기존의 오세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²⁸⁾ 일본 근대문학에서도 여학생은 스스로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세파에 흔들리는 타자적 존재인가의 양면적 관점이 혼재해 있었던 것이다.

메이지 시기 신여성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그대로 조선 근대의 여학생에게도 나타난다. 조선과 일본의 차이라면 조선에서의 여학생은 근대의 선구자이자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절박함까지 부여받고 있었

26) 佐伯順子, 硯畵, 32~34쪽.

27) 작가인 후타바테이의 동경 외국어 학교 동창생이었던 사가노야 오무로(嵯峨の屋お室)는 후타바테이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하며, 『부운』의 주인공은 소노다 세이코이고, 세이코는 타동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嵯峨の屋お室, 『浮雲』の苦心と思想, 『二葉亭四迷』, 東京岩波書店, 1954. 176쪽.(송혜경, 『후타바테이시메이(二葉亭四迷)의 『부운(浮雲)』론』, 『일본학보』, 제59집, 2004.6. 322~323쪽에서 재인용.)

28) 송혜경, 硯畵, 322~325쪽 참조.

다는 점이다. 단순히 새로운 이상, 새로운 관념의 체현으로서의 신여성, 여학생이기 이전에 민족과 국가의 내일을 담당할 새로운 주체로서의 임무까지 부여받고 있었던 것이다. 당대 2천만 인구 중 30만에 달했던 남녀 소학생중 7분의 1에 달했던 여자 소학생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으며, 특히 1500여인의 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은 그 자체로서 조선의 미래와 이상을 구현해야할 담지자들이었던 것이다. 1920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 근대 소설에서 형상화된 여학생들의 모습은 이들에게 걸었던 기대와 환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상함으로써 한국적 근대성이 형성되어 가는 궤적을 드러낸다. 그것은 메이지기 신여성의 모습에서 일본인들이 느꼈던 혼란스러움과 중첩되면서 하나의 동양적 근대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2.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기생의 몰락

일본에서 근대소설의 효시로서 이름 높은 坪内逍遙의 <当世書生氣質>(명치18-19)에서 주인공 小町田은 藝妓를 마음에 두고 있지만, 전도유망한 서생의 신분으로서 그와 같은 감정을 밝힐 수 없어 전전긍긍한다. 여기에는 여타의 이목도 중요하지만 남녀관계의 정신화·靈化를 모토로 한 ‘연애’의 제의식의 등장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명개화’의 선구적 주자였던 福澤諭吉이 “문명개화가 점차로 진행되면 ……一夫一婦의 分을 지키게 된다.”고 논하고는 ‘娼妓, 藝妓의 醜’와 ‘내첩 외첩의 존재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⁹⁾ ‘연애’의 생성과 더불어 일본 문학에서 발견되는 藝·娼妓 혹은 첩의 세계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바로 이 점을 드러내고 있다. 森鷗外の 『雁』에서 그려지는 첩의 세계, 泉鏡花의 『通夜物語』에서 그려지는 遊女の 세계 등은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연애’로 상징되는데바 남녀평등의 근대적 제의식이 대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29) 福澤諭吉, 『品行論』, 明治8年, 『福澤諭吉全集』 5, 岩波書店, 555쪽.

1910~20년대의 조선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1921년 「娼婦撤廢論」³⁰⁾의 등장은 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娼婦撤廢論」에서는 賣娼을 強姦以上の 重大한 不道德으로 규정한 후, 공창제도 보다는 오히려 예기제도를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논지에 따르면 예기제도는 공창제도와 달리 법적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어린 소녀들의 성매매를 합법화시킬 뿐 아니라 “遊廓과如히一定한區域에 限定해야잇지만”기 때문에 “도덕自由로 花류병을 傳播식히”므로 사회적 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妓生이란事實上的賣笑婦”라는 언급에서도 나타나듯 여기서는 예기를 전통문화의 전수라는 외양을 내세운 ‘매창’(賣娼)의 교활한 형태로서 폄하, 예기 역시 창기로 일괄적으로 편입시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예기제도가 이처럼 집중적 포화를 맞고 있음에는 조선 전통 문화 말살을 꾀하던 일제의 교묘한 의중을 그 배후로서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근대적 세계를 향해 체제를 정비해가던 조선의 새로운 시대적 의식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었음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창기제도의 비인간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정조’의 문제로 이끌어 가는 서두 부분은 그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창부철폐론에서는 정조의 무자각, 즉 정조관의 부재 = 野獸와 같은 상태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제는, 예기와 창기의 무차별화를 초래, 예기의 몰락을 가져오는 결정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기에 대한 논자의 태도, 기생 즉 예기를 “藝術만 賣함이 아니라 兼하여賣淫까지”하는 “娼妓보다도一層더自由로운 남자의玩弄物”로 환원시켜버리는 일련의 태도는 바로 이 점을 읽게 해주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정조’의 문제야말로, 전통문화의 전수자와 남성의 성적 유희의 대상이라는 이중성 속에 놓여있던 예기를 ‘창기’의 범주로 귀속, 창기와 더불어 사회로부터 일괄 제거시켜버릴 수 있는 최적의 그물이었던 것이다.

30) 新民生, 「娼婦撤廢論」, 『新民公論』, 1921.

뿐만 아니라 ‘정조’의 문제는 앞서 인용문에서도 지적되듯 일부일처제 형성의 결정적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예기제도 철폐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는 ‘정조’의 문제는, 근대적 남녀관계 형성의 주요 골자로서 1920년대를 기점으로 조선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절의 관념성과 달리 육체성에 기저한 이와 같은 ‘정조’의 등장은, ‘연애’를 통해 전파되고 있던 남녀관계의 정신화·靈化 경향, 그리고 일부일처제에 기저한 ‘가정’ 개념의 사회적 확산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전근대적 구습 타파의 일환으로 1900년대를 지나면서, 조선사회에 등장한 근대적 가족관계 ‘가정’의 성립이 남녀상호간의 ‘정조’ 준수를 필수적 조항으로 요구하고 있었다면, 남녀 애정관계의 정신화를 통해 평등한 남녀관계를 도모해가려던 ‘연애’의 실현에 있어서도 정신화의 보증으로서의 ‘정조’, 즉 육체적 순결성의 준수는 역시 필수적 조항이었다. ‘처녀’에 대한 찬탄이 급작스레 등장하고, 순결한 육체를 지닌 ‘여학생’이 ‘연애’의 히로인으로서 등장하는 것에는 ‘연애’와 정조, ‘연애’의 결정체로서의 ‘가정’과 정조간의 이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정조’의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집중적 조명이 좁게는 일부일처제 성립을 통한 제도 개혁, 넓게는 남녀평등의 근대적 세계에 대한 당대 사회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기생의 입지가 어떠했을까는 굳이 설명치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조선사회에서 발견되는 처녀숭배의 풍조에 대한 대략적 고찰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감지된다.

1920년대 초반 조선 사회에서 발견되는 ‘처녀’에 대한 경탄과 숭배 풍조는 조선의 근대 수용 과정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성의 육체적 순결성을 지칭하는 한정된 의미로서 1920년을 전후한 시기 조선에서 재탄생, 재발견된 ‘처녀’는 육욕의 배제를 통한 정신성의 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남녀관계 형성의 중요 관건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대 신청년들을 매료시켰던, 유한적 육적 관계

에 대립되는 영원성의 의미로서의 ‘영적’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도 여성의 육체적 순결성 즉 ‘처녀’는 필수적 요구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처녀숭배’의 본원적 의미에 대해서는 1927년 1월 『現代評論』에 발표된 논설 「處女崇拜」에서 그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와세다 대학 교수 机足理一郎이 논자로서 명기된 이 글은 1920년대 조선에서 ‘처녀’ 숭배라는 이질적 풍경이 왜 등장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이 글에서 机足理一郎은 ‘처녀’라는 용어를 ‘처녀성’으로 한정시켜 표현한 후 ‘처녀성’=성적 경험을 겪지 않은 여성의 특별한 육체적 상태로 명료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처녀’란 용어가 미혼의 여성을 지칭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 의미로부터 여성의 성적 순결성을 지칭하는 제한적 의미로서 변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처녀’의 의미 규정 및 변환이 机足理一郎에 의해 처음 전개된 것은 아니다. 대략적으로 근대 의학 특히 해부학의 이입에 기반한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과학적 인식, 기독교 및 프로테스탄티즘의 전파에 따른 정신성에 대한 과다한 강조의 태도, 남녀평등의 근대적 의식의 등장 등 문명개화가 한창 진행 중이던 1800년대 말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처녀’는 이미 새로운 의미로서 발견되고 있었다.

‘처녀’를 둘러싼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은 서구적 사랑 ‘러브’의 번역어로서 1800년대 중반 일본에 전파된 근대적 애정형식 ‘연애’의 성립과정 속에서 보다 정확하게 감지된다. 이 점은 일본 연애론의 대표적 이론가로서 ‘처녀’의 순결을 남녀 애정관계의 정신성에 기반한 ‘연애’의 근대적 의식과 연결시킨 北村透谷의 논설 「處女の純潔을論한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처녀의 순결이 단순히 육체성의 한정된 의미를 벗어나 육정과 대립되는 정신성의 보증, 즉 정신성의 의미로서 확대되어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명개화기 일본에서 발견되는 ‘처녀존중’의 태도에는 기독교 및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의 영향, 남녀평등의 근대적 의식, 즉 육적 관계에 기반한 남성 예속적 남녀관계로

부터 여성을 해방, 여성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근대적 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의 성립과 ‘처녀’간의 이와 같은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1920년대 초반 조선의 문학에서 발견되는 정조 유린 모티프는 조선의 근대 수용 정도에 대해 다양한 점을 고려케 한다. 이광수의 <無情>을 비롯 김동인의 <弱한 者의 슬픔>, 이광수의 <再生>, 나도향의 <환희>, 현진건의 <蹂躪>에서는 정조 유린의 모티프가 등장, 육욕(肉慾)에 근거한 남녀 관계의 비극성 및 그로부터 강조되는 ‘靈의 사랑’의 절대적 가치가 반복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이광수의 <無情>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작품들이 비슷한 기간에 정조 유린이라는 동일 모티프를 사용, ‘처녀’로 상징되는 남녀 애정관계의 정신성, ‘靈의 사랑’의 의미를 동일한 수법으로 강조하고 있음은 테마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을 떠나 근대의 관념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조 유린 모티프를 취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사랑’과 관련된 기묘한 전도현상, 예를 들자면 육적(肉的) 사랑과 영적(靈的) 사랑간의 갈등을 위해 사랑의 감정이 조작되는 기묘한 전도 현상은 관념으로서 밖에는 근대를 수용할 수 없었던 근대 조선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근대적 의식간의 괴리와 간극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환영으로부터 ‘처녀’에 대한 이들 문학의 경탄, 숭배의 태도 역시 ‘영적(靈的) 사랑’이라는 이국적 문화에 대한 부박한 열광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1920년대 기생의 몰락과정에는 바로 이와 같은 대화제적 분위기가 배경해 있었던 것이다.

기생을 둘러싼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은, 소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발견된다. 이상협이 <눈물>, 작자미상의 <영광정>과 <을밀대> 등 신소설에서 기생은 부정적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연애소설이란 타이틀을 지닌 이광수의 <無情>,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뜯

때>, 나도향의 <환희>,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등 신청년의 애정 관계를 테마로 한 다수의 소설에서 기생은 여학생의 대척점으로서 등장, 강간, 자살과 같은 비극적 몰락을 맞는 인물로서 묘사된다. 이들 중 ‘연애’를 테마로 한 최초의 소설 <無情>에 그려진 기생의 이미지는 ‘연애’의 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無情>에서 기생이라는 영채의 신분은 영채 삶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생에 대한 당대 사회의 비판적 시각은 영채 뿐 아니라, 영채의 어머닌 되기 노파, 영채의 친구 월화, 계향 등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기생들의 전략과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無情>의 태도는 나도향의 <환희>,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뜰 때>,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현진건의 <타락자>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생을 둘러싼 당대 사회의 태도로서 확대, 이해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연애 이입기인 명치시대 일본의 소설에서는 藝娼妓 배제의 분위기과 더불어, 근대적 인간관에 대한 반발로서 예창기의 세계에 대한 옹호의 분위기가 함께 공존하였음에 반해서, 왜 조선은 일면적 몰락으로 귀결되었는가하는 점이다. 이는 기생의 존립에 관한 관심 여부를 떠나 식민치하 일본 문화에 의한 조선 문화의 변용 및 조선의 근대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1925년 잡지 『개벽』에는 「最近朝鮮에 流行하는 新述語」라는 題名하에 3. 1 만세 운동을 전후해서 조선에 등장한 ‘신술어’를 열거, 설명한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는 문화활동, 埋葬, 자유연애, 不逞鮮人, 해방, 어린이, 빈민 고뇌 등과 같은 ‘신술어’의 등장 속에서 3. 1운동을 전후한 시기 조선의 사회적 변모가 고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술어’들 중 다수는

이미 개항과 더불어 조선에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적잖은 부분이 그 형성에 있어서, 조선에 앞서 근대적 문물을 수용했던 일본에 크게 빚지고 있기도 했다. 말하자면 근대적 제도 및 사상의 이입과 더불어 조선에 나타났던 ‘신술어’, 예를 들자면 개인(個人), 자아(自我), 사회(社會), 개성(個性), 미(美), 연애(戀愛)와 같은 ‘신술어’들은 수용 및 생성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도 일본의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항 이후 조선에 유입된 ‘신술어’를 둘러싼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의 근대와 관련, 중요한 하나의 의문을 야기 시킨다. 일본이 생성시킨 근대적 ‘번역어’를 수용, 이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 즉 조선이 이들 ‘번역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면화시켜내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조선이 경험한 근대가 일본적 변환을 겪은 근대였던가 아닌가라는 정치적 민감성을 떠나, 조선이 경험했던 근대가 어느 정도의 실제성을 지녔던가라고 하는 본질적 사안과 연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1920년대 조선의 ‘영원한 사랑’에의 열병 속으로 몰아넣었던 ‘신술어’ ‘연애’의 수용과정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용어 ‘연애’는 영어 ‘러브’의 번역을 위해서 1870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에서 생성된 ‘新造語’였다. ‘色’, ‘戀’, ‘愛’ 등 사랑을 지칭하는 전통적 용어가 이미 일본에 있었음에도 이 시기 일본인들이 ‘러브’의 번역어로서 ‘戀愛’라는 신조어를 생성시키고 있었음에는 서구적 사랑과 전통적 사랑간의 차이, 깊게는 근대적 인간관과 전통적 인간관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한 신문물 이입기 일본인들의 심적 여유가 그 기저에 있었다. 이처럼 ‘러브’로부터, ‘戀愛’에 이르는 변용을 겪은 서구적 사랑 ‘러브’는, 1910년대를 전후한 시기 용어 ‘연애’로서 조선에 수용된다. ‘렌아이(戀愛)’와 ‘연애(戀愛)’라는 일본어와 조선어간의 발음의 이질성만 제외하면, 한자어 ‘戀愛’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 시기 조선에서의 ‘연애’의 생성이 과연 일본이 추출해낸 서구적

사랑 ‘러브’ 즉, ‘戀愛’의 일방적 수용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을 발생시키게 된다 말하자면, ‘러브’를 ‘戀愛’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자문화와 타문화 그리고 전근대와 근대의 간극에 대한 인식이 ‘렌아이(戀愛)’로부터 ‘연애(戀愛)’로의 변환과정에서도 과연 발생되고 있었던가에 대한 의문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연애’가 ‘문명개화’의 기치 아래 일종의 사회 개혁적 측면을 강하게 띤 채 전개되었던 것처럼 ‘조선’에서의 ‘연애’ 역시 동일 맥락에서 수용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연애’의 근대적 측면, 예를 들자면 남녀 애정 관계의 정신화를 통해 남녀평등의 근대적 세계를 지향했던 ‘연애’의 제의식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애’의 실현의 실천적 방안들, 예를 들자면 애정의 자율성, 여성의 교육, 일부일처제의 준수 등은 강압결혼, 남존여비와 같은 조선의 전근대적 구습 타파의 핵심적 동력로서 작용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애’가 지닌 이와 같은 풍속 개혁적 측면 즉 실용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의 ‘연애’는 관념적 성향을 강하게 띤 채 전개되고 있었다.

실제로, <無情>을 비롯 ‘연애’를 테마로 한 1920년대 일련의 작품들에서 ‘연애’는 남녀 간의 자율적 애정관계의 의미를 떠나 절대적 규범으로 변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마음이 열린 참여>, <환희>, <재생> 등에서 신교육을 습득한 신청년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 속에서 근대적 사랑 ‘연애’를 실현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실현키 위해 사랑의 감정을 조작해낸다. 근대적 제도로서의 ‘연애’가 앞서 존재하고 그로부터 ‘사랑’의 감정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둘러싼 이 기묘한 역전, 혹은 전도의 과정이 근대의 수용과정에서 당연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에서의 ‘연애’의 수용은 이와는 다르게 다소 이질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제도로서의 ‘연애’로부터 사랑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연애’로부터 사랑의 ‘환영’이 창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의 환영. 확실히 ‘연애’의 이입과 더불어 조선을 휩쓴 낭만적 사랑의 열풍 이면에는, 이와 같은 측면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상호간에 별다른 애정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연애’에 대한 동경 속에서 노력에 의해 사랑을 창출시켜내던 김동인의 <마음이 열린 者여>에서 나타난, 사랑을 둘러싼 기묘한 상황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타의 작품들 속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환희』 혹은 『재생』 등의, 사랑의 당사자들조차 자신들의 사랑이 과연 실재하는 것인가를 반문하게 될 만큼, 급작스러운 사랑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 미약한 애정의 결속력, 반복되는 애정의 파기 등은 그와 같은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이들 소설 속 인물들의 행위, 즉 사랑에 대한 이들의 완전한 헌신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연애’가 전파시킨 ‘완전한 사랑’에의 지향 속에서 영구 불변한 사랑을 끊임없이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애정을 쉽게 배반해 가는 이들 인물들의 행위는 번역어 ‘연애’의 조선적 수용과정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최초의 연애소설로서 평가됨에도, 겨우 애정 형성의 단초를 미약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선에서 끝나버렸던 이광수 <無情>이라든가, 육체적 관계 일변도의 남녀관계를 전개하면서도 영적 사랑과 육적 사랑 간의 갈등의 형식만 취하면 그것이 곧 ‘연애’를 경험하는 것이라도 믿었던 김동인의 <마음이 열린 者여>는 조선적 ‘연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연애’의 수용에 대한 1910년대 논설의 비판, 즉 조선의 젊은이들은 ‘연애’를 경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애’에 ‘醉’하려고 노력한다는 비판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남존여비의 유교 사상에 근거한 ‘섬김’과 사랑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가 하면(<無情>) 영적(靈的) 사랑과 육적(肉的) 사랑의 의

미를 전혀 납득치 못하던(<마음이 열린 者여>), 사랑과 관련, 이 시기 소설 주인공들에게서 나타난 의식의 혼란에서 알 수 있듯 ‘연애’의 조선적 수용 과정에는 용어 ‘연애’와 그 ‘연애’에 내재된 의식 간에 끊임없는 괴리와 간극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는 곧 조선에서의 ‘연애’란 것이 異文化에 대한 부박한 동경, 감상적 도취의 수준, 말 그대로 이국적 번역어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사랑의 환영 창출이라는 사랑을 둘러싼 일견 기묘한 현상의 발생 역시 충분 납득이 가는 것이다.

주제어 : 연애, 기생, 여학생

참고문헌

- 『韓國新小説全集』, 乙酉文化社, 1968.
- 『李光洙全集』, 三中堂, 1962.
- 『金東仁全集』, 三中堂, 1976.
- 『나도향전집』 上, 下, 집문당, 1988.
-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 송혜경,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부운(浮雲)』 연구 : 메이지 초기 연애관과 오세이의 비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3.
- 정병호,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부운』(浮雲)론』, 고려대학교, 1995.
- 柳文章,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新書, 1982, 89쪽.
- 伊藤整, 『近代日本における‘愛’의 虛位』, 1958, 『伊藤整全集』 第十八卷, 新潮社, 1973
- 佐伯順子, 『戀愛の起源』, 日本經濟新聞社, 2000.
- 佐伯順子, 『文明開化と 女性』, 新興社, 1991.
- 佐伯順子, 『‘色’と‘愛’의 比較文化史』, 岩波書店, 1998.
- 그 외, 『青春』, 『學之光』, 『開闢』, 『現代評論』, 『長恨』, 『新民公論』, 『女學雜誌』 등의 잡지

<Abstract>

Establishment of Modern Period and Finding of ‘Love’

-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Centered on Giseng and Girl Student -

Riu, Jong-Yeol · Nam, Bu-Jin ·
Lee, Tae-Sook · Chung, Hyae-Young

The word “Yeon Ae”, which is a term denoting affectionat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was formed in Japan as a translation of the English, “Love”. It was imported into Korea around 1910s and came into use. Afterwards, in a social and political atmosphere of the 1920s like mass return of study-abroad generation and total introduction of modern civilization which took place alongside the “culture politics” just after the “3.1 Movement”, the “Yeon Ae” becomes a dominant social trend. The influence of “Yeon Ae” among the contemporary society can be easily amassed through a newspaper editors’ opinion which mentioned that “the whole society has been caught by ‘Love pestilence’ like an influenza epidemic.”

It can be said that in the influence of “Yeon Ae” among the society, the overall meanings “Yeon Ae” as a symbol of modern thought like the equality between genders played a decisive role. In other words, in the epidemic of “Yeon Ae” in Chosun, a strong desire of transitional Chosun for the modern world was acting as a motive together with the romantic longing for the love and the excited

intoxication with the “Yeon Ae” as a new culture. Therefore, looking into the process by which Chosun accepted and formed “Yeon Ae” could provide important materials for understanding modern Chosun.

Key Words : love, giseng, girl student